

전주대 산학협력단 김정식 팀장, 도지사 표창 수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산학협력단은 기술사업화팀 김정식 팀장이 2024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정식 팀장은 2015년부터 특허 및 기술이전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뛰어난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의 기술 사업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와 추진에 앞장서며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식 팀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노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학의 우수한 기술이 지역사회로 전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식 팀장은 제13대 서남권기술사업화협의회 회장 재임에 이어 제14대 협의회 회장직도 연임하며, 기술사업화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박종덕 팀장, 시민장학재단에 시상금 기탁

전북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박종덕 정읍시장 세정국 세입관리팀장이 상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또 한 번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박 팀장은 수상으로 받은 상금 72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2019년부터 시작된 그의 선행 중 여섯 번째로, 각종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빠짐없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박종덕 팀장은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래 세대가 꿈을 실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이화수 시장은 “박종덕 팀장의 꾸준한 기탁은 지역 인재들에게 큰 감동과 힘이 되고 있다”며 그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물품 전달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9과 20일, 산동의를소방대와 수지의용소방대가 이웃돕기 기부금 150만원과 물품 등을 산동면과 수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지역 남녀의용소방대원 50여명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도움을 위한 것으로, 남녀의용소방대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객정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소방서 김태성 대응총괄팀장은 “남녀의용소방대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와 함께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소방서, 연말연시 나홀로 아동 소방안전교육

김제소방서는 지난 23일 월요일 공덕면 마천리를 한 가정집을 찾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나홀로 다문화아동을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 혼자 있는 어린이에게 화재 시 대처 방법과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김제소방서는 김제시가족센터(센터장 장덕상)와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정 중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를 추천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교육 △불나면 대피만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성탄절을 맞아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선물도 함께 전달하였다.

최지선 김제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다문화 가정 중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어린이들이 유사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나는 익산의 원더우먼’... 홍보 영상 제작 ‘결실’

익산시 기획예산과 이숙진 계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익산시 기획예산과 이숙진 성과통계계장이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숙진 계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책을 홍보해 익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숙진 계장은 자신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한 영상으로 올해 월 1회 이상 SNS 업로드를 통해 총 12건으로 3,000명 이상의 공감과 5만7,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성당면 교도소 세트장을 홍보하기 위해 본인인 시어머니 등 가족 3대가 출연한 영상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3천 회 이상을 기록하며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수도산공원과 신축아파트를 배경으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숙진 계장은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시민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적극적인 공무원으로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감하는 홍보를 마음껏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좋은 익산시 만들기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숙진 계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거리·막거리·이야기 거리가 많은 풍요로운 익산시를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로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불러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정책을 홍보했으며 익산을 떠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익산시에 정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었다고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 덕과면 진규양씨, 마이스터 약용작물 장인(匠人) 선정

남원시 덕과면에서 전문농업경영인 진규양씨가 특용작물 분야 장인(약용작물 匠人)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업분야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방식을 보유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선발 절차방식은 총 1차~4차로 이루어지며, 지난 11월1일 발표된 합격자는 식량작물, 원예, 축산, 특용작물, 친환경작물 등 5개 분야 30개 품목에 31명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특용작물(약용작물)분야는 전국에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원시 덕과면 진규양씨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농업마이스터(약용작물匠人) 시험에 최종 선정되어 지난 11월 28일에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수여식이 있었다.

장인으로 선정된 진규양씨는 남원시 덕과면 월평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용작물, 기능성작물, 약용작물 위주 연구는 물론 재배하고, 지역에서 농업인과 귀농인, 귀촌인, 학



생 등을 대상으로 강의, 현장실습, 재배기술, 종자보급, 구매, 사회봉사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 등을 수행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에 부는 나눔의 바람... ‘따뜻한 겨울 선사’

정읍시에 훈훈한 나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참단방사선연구소와 (주)코미팜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참단방사선연구소(소장 정병업)는 지난 24일, 지역사회 소외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읍시에 방사선육종연구실에서 생산한 ‘나눔의 쌀’ 1000kg(246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 쌀은 사회복합공동모금회를 통해 상교동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육종연구실은 2006년부터 방사선 육종 기술을 활용해 신품종 벼와 콩을 개발하고 이를 농가에 무상 분양하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자체 증식한 신품종 벼와 콩 종자 약 475kg을 전국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등 67곳에 분양한 바 있다.

특히 방사선육종 기술로 개발된 신품종은 농가 보급을 확대하고 유용한 식물 유전자원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2007년부터 매년 연구소에서 연구·재배한 쌀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해오며 나눔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주)코미팜도 백미(10kg) 192포(500만원 상당)를 기탁하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반석건설건기(대표 장용범)가 성금 100만원, 사모임단체 정읍시광장 회원 일동이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훈훈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OCI 군산공장, 관내 경로당 3개소에 안마의자 기부

OCI(주) 군산공장(공장장 표상희, 군산노동조합위원장 장육남)이 24일 소룡동 관내 경로당 3개소를 방문해 430여명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경로당은 안마의자가 없는 한성팔하우스 경로당과 안마의자가 노후된 진흥아파트 동아파트 경로당이다.

이번 기탁은 추운 겨울에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OCI(주) 군산공장은 이번 기탁 외에도 이웃돕기 물품 기탁과 연말 김장김치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및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OCI(주) 표상희 군산공장장과 장육남 군산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안마의자 기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휴식을 돕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남원 동통동 주민자치위,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발표회

남원시 동통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문강현)는 지난 12월 20일, 동부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자치사랑방 수강생,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동통동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토, 풍물교실, 라인댄스, 춤비엔스, 하모니카교실, 노래교실, 한국무용, 웰빙댄스 7개 프로그램이 발표했으며, 또한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내 기관이 기부한 물품으로 진행된 행운권 추첨과 다과회는 주민 간 따뜻한 소통과 정을 나누며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문강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지방자치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난 12월 20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기초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이숙자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이숙자 의원은 제1대 후반기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요구,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 왔다.

또한 농업인 지원과 수수료 감면, 모자건강 증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버스터미널 개선, 스포츠산업과 도시 실현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

이숙자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세모네모작은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진행

진안군 진안읍 세모네모작은도서관은 지난 21일 겨울방학 맞이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빵소 만들기를 진행했다.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프로그램 진행 요청으로 진안군민 157가구를 선착순 모집하여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빵소 만들기 등을 통해 겨울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먹거리나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모네모작은도서관은 진안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진안군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보다 나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독서문화 향상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지역의 주민들과 농촌유학 등으로 귀촌해오신 분들과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지희 세모네모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세모네모작은도서관이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100세까지 군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남원 부림석재 정형국 대표, 도통동에 성금 기탁

남원시 도통동은 부림석재 정형국 대표가 지난 17일 (화),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림석재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9년째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기부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업체로, 정형국 대표는 “지역사회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소산자 도통동장은 “일 년에 2회씩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정형국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광활면생활개선회, 성금 200만원 기탁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생활개선회(회장 임순이)가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생활개선회가 지난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음식부스를 운영하며 직접 마련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임순이 생활개선회 회장은 “이 성금은 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마련한 금액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수선 광활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시 광활면 생활개선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합공동모금회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